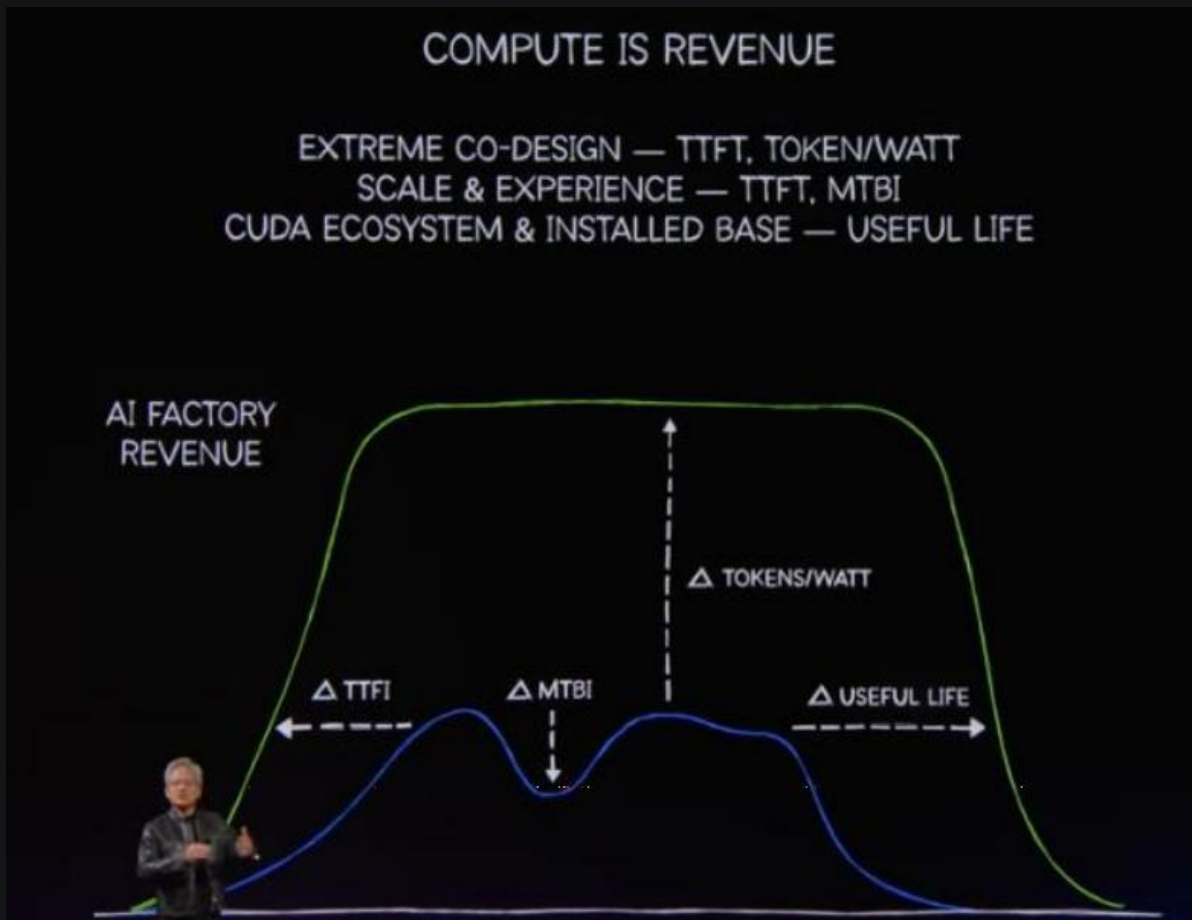


# HANARO

## ETF Monthly

July. 2026



출처: Nvidia, GTC타이페이 2026 기조연설을 진행하는 젠슨 황 CEO

# Contents

---

## 01. Market Focus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6월 금융시장 이슈

- 마이크론실적발표 - 메모리 수퍼사이클 지속
-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 반도체 테마 확산 기대

## 02. HANARO Insight

토큰노믹스 - AI시대의 새로운 투자 언어

## 03. 7월 추천상품

## 04. HANARO ETF 수익률 TOP5

##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6월 금융시장 이슈

### ▷ 마이크론 실적 발표 - 메모리 수퍼사이클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발표 기대

마이크론  
어닝서프라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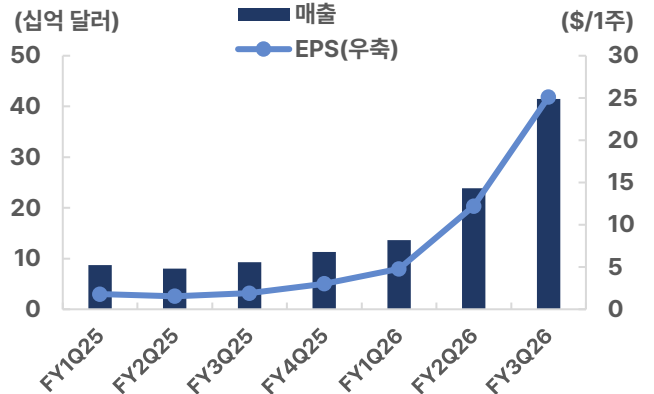
마이크론은 6월 24일(현지시간 기준)발표한 26년 3Q (26년 3월~26년 5월) 실적발표에서 매출 414.6억 달러(QoQ +73.8%, YoY +345.8%)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조정 EPS는 주당 25.11달러(QoQ +105.8%, YoY +1,214.7%)로 시장 전망치(20.49달러)를 크게 웃돌며 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익성 또한 급격히 개선되어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37.7%에서 84.6%로, 영업이익률은 26.8%에서 81.2%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 ▷ 마이크론 2Q 실적 - 전 사업부에서 실적이 향상

사업 부문	매출 (억 달러)	YoY 성장률	비중
클라우드 메모리	137.7	+306.2%	33.2%
모바일 및 클라이언트	115.2	+652.9%	27.8%
코어 데이터센터	115.2	+253.4%	27.8%
자동차 및 임베디드	46.3	+309.7%	11.2%

• 기준일: 2026.06.25, 출처: Micron ,NH-Amundi

#### ▷ 마이크론 분기별 매출 및 EPS추이



• 기준일: 2026.06.25, 출처: Micron ,NH-Amundi

AI 가속기용 HBM(고대역폭 메모리) 및 데이터센터용 D램이 실적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발 수요 급증이 클라우드를 넘어 모바일, 자동차, 임베디드 등 전 메모리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메르트라 CEO는 현재 공급이 고객 수요의 50~60% 수준만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며, 2026년 HBM 물량은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전량 판매가 완료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자동차 업체들과 3~5년 기간의 장기공급계약(LTA) 16건을 체결했음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의무 인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호황기에는 시장가를 가격 상한선으로 적용하되 불황기에도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최저 보장 가격이 작동하는 가격 상하한 이중 방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유의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가 AI 시대의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단순한 실적 성장을 넘어 중장기 안정성까지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과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유사한 계약 구조의 확산이 기대되며, 국내외 반도체 종목에 대한 긍정적 투자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We believe our multi-year Strategic Customer Agreements will significantly enhance the dur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Micron's strong financial performance."

"당사는 다년간의 전략적 고객 계약(SCA)이 마이크론의 강력한 재무 성과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26.06.24 메르트라 Micron CEO



##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6월 금융시장 이슈

### ▶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2026년 6월 29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국가 산업전략 프로젝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투자를 중심으로, 피지컬AI를 육성하기 위한 로봇 산업 투자 및 막대한 AI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투자 발표는 정부주도의 인프라 투자 계획임과 동시에, **한국의 미래 산업 지형과 정책적 자원 투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중 장기 주식시장의 방향을 그려볼 수 있는 정책 흐름으로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 ▶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구분	주요 내용
반도체	· 서남권(메모리팹) 등 반도체 생산거점의 전국 확산 · '5년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 확충' 등 압도적 투자 속도전 추진
피지컬 AI	· 새만금-대경권 K-로봇 양대 성장축 조성 · 휴머노이드 산업현장 확산,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AI 데이터센터	· 울산·동해·세종 등 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자료)

금번 발표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사안은 바로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대규모 투자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조성하고, 총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팹 4기를 구축하기로**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동남권, 충청권에도 각각 소부장, 패키징 거점 추진을 통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전국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택/용인의 생산거점을 조기에 완성해 생산캐파의 신속한 증설을 지원하고, 5년 내 메모리 생산 캐파를 2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팹 투자 계획은 2026년 상반기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 투자 열기를 국내 장비,부품 업종으로 본격 확산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메모리 팹 4기 신규 구축과 기존 거점의 캐파 2배 확대라는 구체적 목표가 제시된 만큼,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중장기 수주 파이프라인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환경으로 평가됩니다.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투자 모멘텀이 관련 밸류체인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 ▶ 반도체 성장 거점 전국화

구분	주요 내용
서남권	· 수도권에 이은 제 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 ·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4기 구축(삼성전자 2기, SK하이닉스 2기)
동남, 대경권	· 부산, 구미 등 기존 반도체 기반을 활용한 소부장 혁신거점으로 육성
충청권	· 패키징 거점. 81조원을 투입해 HBM패키징 팹 건설 추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자료)

## 토큰노믹스의 부상 - AI시대 새로운 투자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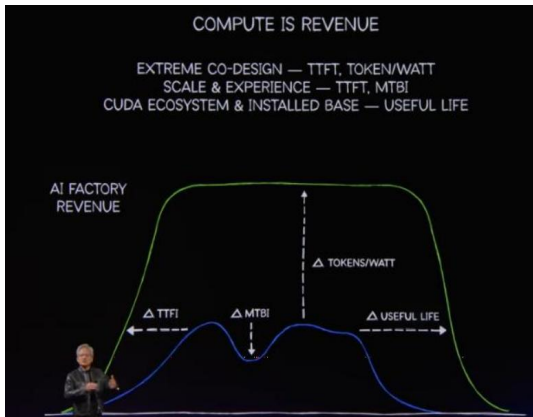
### ▷ 토큰경제학 - "Compute is Revenue"의 시대에서 수익의 단위가 된 토큰

GTCE타이페이 2026에서 드러난 토큰의 중요성

지난 6월 1일 대만에서 열린 GTCE타이페이 2026의 최고 화제는 단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습니다. 그는 기초연설을 통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를 강조하며, 코딩 AI를 필두로 실질적인 효용성을 갖춘 AI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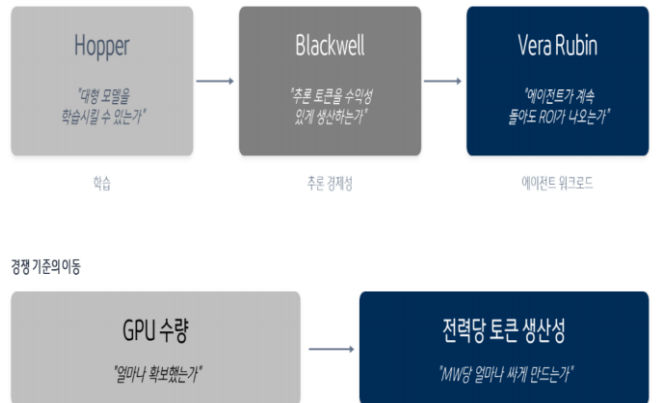
젠슨 황 CEO는 토큰을 생성하는 **컴퓨팅 인프라가 곧 수익 창출원(Compute is Revenue)**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히며, 연산 효율성이 기업의 직접적인 매출로 직결되는 토큰 경제학의 메커니즘을 역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산업의 핵심은 누가 더 빠른 반도체를 보유했느냐 보다 **주어진 전력을 얼마나 더 저렴하게 토큰으로 바꾸어 ROI를 극대화하느냐**가 되었습니다.

#### ■ 젠슨 황의 토큰경제학 메커니즘



출처: Nvidia,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05

#### ■ AI 인프라 경쟁축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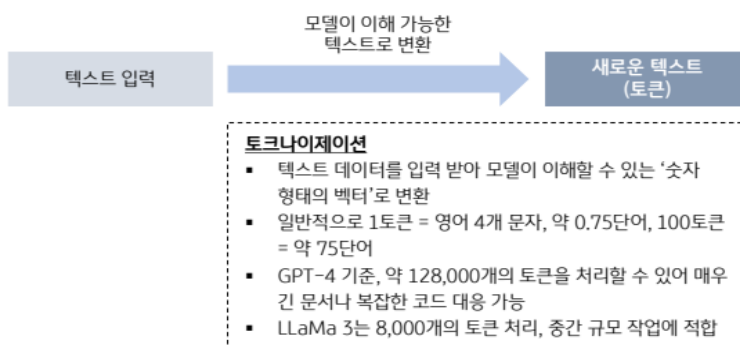
출처: KB증권,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05

토큰: AI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단위

토큰은 AI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토큰은 AI학습, 추론의 기본 단위로서 방대한 정보를 잘게 쪼갠 데이터 단위입니다. AI 모델은 이 토큰들이 변환된 숫자 배열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면서 예측·생성·추론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토큰 총량(입력 토큰 수+출력 토큰 수)로 과금되는 가운데, **한정된 전력 에너지를 바탕으로 토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소비되는가에 따라 AI 밸류체인 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수익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사회가 도래하면 AI의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새로운 화폐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듯이, **AI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토큰은 AI 경제에서 실질적인 화폐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 ■ 토큰화의 과정



출처: Nebius, KB증권,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05

## 토큰노믹스의 부상 - AI시대 새로운 투자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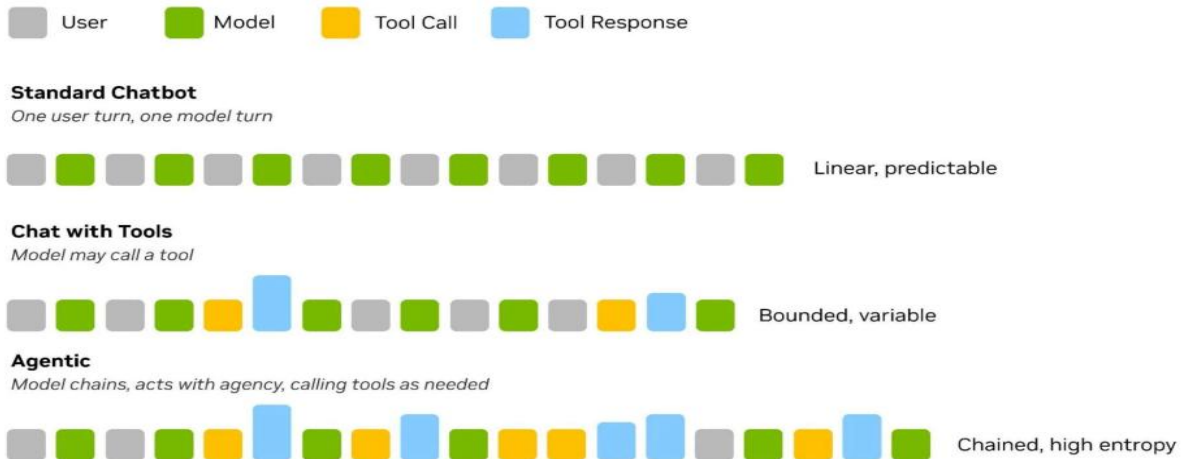
AI가 발전할수록 급증하는 토큰 소비량

그렇다면 토큰은 왜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AI가 실질적 생산성 개선과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이 실제 사례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2026년 6월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케이던스와 공동 개발 중인 칩 설계 슈퍼 에이전트가 기존 몇 주가 소요되던 검증 주기를 40배 이상 단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에이전틱 AI가 만들어 내는 생산성 개선 폭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면에서 소비되는 막대한 토큰량 역시 함께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일반적인 챗봇 기반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내놓으면 종료되는 단선적 구조입니다. 하지만 에이전틱 AI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수립, 자료 검색, 코드 실행, 도구 호출, 자가 검증 등의 과정을 다중 루프 형태로 자율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토큰을 소비합니다.

또한 에이전틱 AI가 현실의 물리 법칙을 반영하는 피지컬 AI로 발전하면서, AI의 토큰 소비량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피지컬 AI는 목표 설정·계획 수립·행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순 텍스트를 넘어 시각, 음성, 센서 등 현실의 복잡성을 반영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토큰화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각, 의사 결정, 모션 등을 담당하는 여러 AI 모델이 병렬로 실행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협업 구조도 고려해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수많은 개별 주체가 유동적인 현실 환경에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토큰 소비량은 지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 AI 워크로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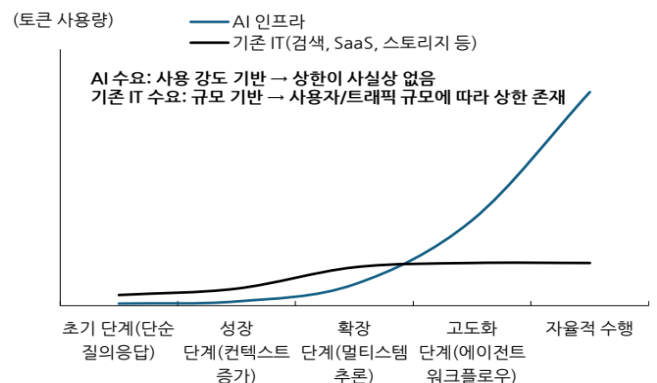
출처: KB증권,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06

### AI 분야별 토큰 소비량

구분	Input 토큰	RAG	Output 토큰	총 토큰
동시 통역	10		30	40
단순 질문	10		20	30
<b>RAG</b> (외부 데이터 검색 후 답변 생성)	40	5,000	1,000	6,040
이미지 생성	20		10,000	10,020
<b>Agent AI</b>	500	20,000	10,000	30,500
1시간 영상 생성	10		100,000,000	100,000,010

출처: DS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년 6월

### AI 기술 발전에 따른 토큰 사용량 변화



출처: DS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년 6월

## 토큰노믹스의 부상 - AI시대 새로운 투자 언어

토큰 맥싱 → 아웃컴 맥싱: 새롭게 대두된 비용 이슈

결과적으로 토큰 생산의 경제성이 중요해지면서,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를 무한정 증가시킨 뒤 이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존의 토큰 맥싱(Tokenmaxxing) 기조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경제적으로 토큰을 생성, 소비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과제가 되었으며, 개별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AI를 선별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웃컴 맥싱(Outcome Maxing)이 토큰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큰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토큰 총이익률과 같은 지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AI평가 지표들이 에이전틱 AI의 반복 루프 속 발생하는 수많은 재시도, 백그라운드 추론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고안된 지표로서, 기업의 실제 수익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완료된 과업(task)을 기준으로 과업이 창출한 매출에서 입출력 토큰 비용, 인프라 전력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실질적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한편 구글의 터보퀀트같은 AI 기술의 가동 효율을 극대화해 불필요한 토큰 소비를 절감하는 최적화 솔루션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적화 기술들의 도입으로 인해 AI 팩토리과 같은 핵심 인프라들의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힘입은 효율성 개선이 단위당 비용의 하락을 야기하여 전체 자원 소비량은 증가시킨다는 제번스의 역설이 AI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AI 최적화 기술로 인해 AI 사용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비용 문제로 불가능했던 복잡한 작업에도 AI가 투입되면서 전체 토큰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 AI 인프라 개선 효율을 위한 기술 트렌드

기술	개선 효율	개선 대상	핵심 효과	설명
KV Cache Compression	메모리 효율	KV 캐시 메모리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bandwidth 부담↓, 더 긴 컨텍스트 처리	토큰당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TurboQuant	메모리 + 연산 효율	KV 캐시 및 activation 정밀도	메모리↓, bandwidth↓, 일부 compute ↓	저정밀 양자화 기반 메모리 최적화
NVLink / 800G / 1.6T	데이터 이동 효율	GPU/서버 간 통신 속도	latency↓, GPU utilization ↑, 클러스터 확장성 ↑	연산기가 놀지 않게 만드는 인터커넥트
CPO (Co-Packaged Optics)	전력 + 데이터 이동 효율	전기→광 변환 거리 및 I/O 전력	전력 소비↓, 신호 손실↓, latency↓	데이터 이동을 짧게 만들어 전력과 손실을 줄이는 기술
LPU (Groq)	연산 + 메모리 효율	토큰 생성 경로 및 데이터 흐름	초저지연, 특정 inference 효율 ↑	토큰 생성에 특화된 연산 아키텍처
NVIDIA Dynamo 800V DC	시스템 효율 전력 전달 효율	GPU 자원 활용 방식 전력 전달 과정 손실	GPU utilization ↑, 병목 완화, 처리량 ↑ 전력 손실↓, 인프라 효율 ↑	같은 GPU를 더 잘 쓰는 스케줄링 기술 전기를 더 적게 잃고 전달하는 구조
카이저랙 (고밀도 랙)	공간 + 냉각 효율	랙당 전력 밀도 및 냉각 구조	공간당 연산량 ↑, 냉각 효율 ↑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하는 구조

- 출처: Coatue, NH-Amundi자산운용/ 기준일: 2026.05
- OAI+엔트로픽+Gemini API 합계

효율적일수록 늘어날 토큰 수요

결국 AI 시대에 전체 토큰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AI 토큰을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의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습니다. 데이터 보관이 주요 목적이었던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데이터센터와 달리,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와 전력을 바탕으로 AI 지능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직접 치환, 생산하는 AI 팩토리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의 목표 역시 단순 GPU의 물리적 개수 혹은 단일 성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어진 자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당하여 토큰 생성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델 배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토큰 생성을 통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에이전틱AI의 본격화는 단순히 GPU의 성능 및 개수, AI 모델의 성능만이 아니라 고효율 전력망 및 냉각 시스템,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결합하여 토큰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즉,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장 낮은 토큰당 비용'을 추구하면서, AI 팩토리를 구성하는 전체 인프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 토큰노믹스의 부상 - AI시대 새로운 투자 언어

AI 토큰 생산력이 좌우할 국가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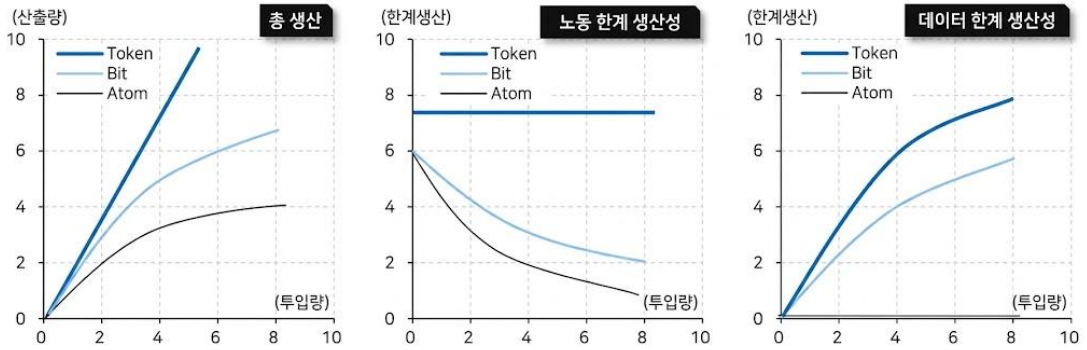
토큰은 이제 단순한 정보 처리 단위가 아닌 기업의 서비스 과금의 기본 단위이자 현대 AI 인프라 경제의 새로운 척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수 자원화 된 토큰을 생산해 내는 AI 팩토리는 자본을 투입할수록 생산의 한계 없이 총 산출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와 차별화되는 차세대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 시설**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글로벌 기술 및 경제 패권은 어느 국가가 데이터센터, 전력망, 통신 네트워크 등 필수 인프라들을 결합하여 AI 토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을 최적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컴퓨텍스 및 GTC 타이페이에서 발표와 같이 향후 AI 기술 발전의 초점은 단순히 빠른 GPU나 고성능 AI 모델을 넘어, 토큰 경제학 및 AI 팩토리로 대표되는 **더 낮은 토큰당 비용을 만드는 인프라 효율성 경쟁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효율성 개선은 AI 인프라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 기존의 높은 토큰 비용 구조로는 제대로 활용이 어려웠던 에이전틱 AI 및 피지컬 AI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전체 토큰 소비와 AI 인프라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시킬 것입니다.

AI 인프라의 수급 불균형 지속 전망. 관련 ETF 투자 전략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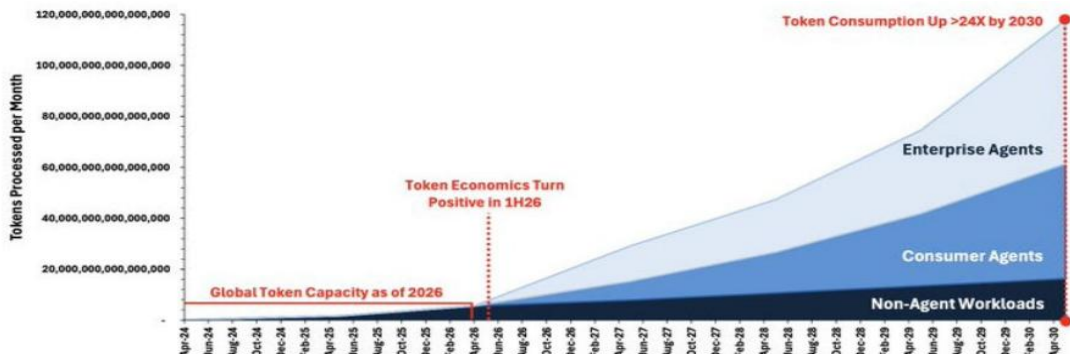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전력 기계, 핵심 반도체 부품 등 **AI 인프라 전반에 대한 높은 수요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섹터는 **하반기에도 유망한 투자 테마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유효한 투자 수단인 당사의 **HANARO Fn K-반도체(395270)**, **HANARO 미국AI메모리 TOP4+(0181B0)**,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476260)**, **HANARO 전력설비투자(491820)** 등 AI 인프라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 ■ 물질 경제(Atom) → 디지털 경제(Bit) → AI 경제(Token)로의 기술 진보와 생산 함수 변화



출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05

### ■ 글로벌 토큰 소비량 전망



출처: GoldmanSachs,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026.05

## HANARO Fn K-반도체 국가대표 반도체 ETF, K-반도체 대표기업 20종목에 투자

### 투자포인트

- K-반도체 산업을 하나로, 국내 반도체 대표기업에 투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AI밸류체인 특화된 K-반도체에 투자
- AI시대 핵심 전략 인프라로 격상된 K-반도체의 위상, 메모리 반도체 수퍼사이클

###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SK하이닉스	26.64
2	SK스퀘어	23.00
3	삼성전자	22.79
4	삼성전기	17.76
5	한미반도체	1.61
6	주성엔지니어링	0.99
7	이수페타시스	0.93
8	원익IPS	0.80
9	DB하이텍	0.65
10	리노공업	0.62

종목명	HANARO Fn K-반도체					
종목코드	395270					
상장일	2021.07.30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FnGuide K-반도체 지수					
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수탁/사무	하나은행/한국펀드서비스					
보수	운용	AP,LP	수탁	사무	합성총보수	증권거래비용
	0.36	0.05	0.02	002	0.5087	0.0256

- 기준일 26.06.30,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ETF 거래 수수료,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더욱 촘촘하게

### 투자포인트

- AI발전의 핵심 인프라 메모리, 스토리지
- DRAM, 낸드플래시, HDD - 소수 과점사업자의 글로벌 지배, 업사이클 장기화
- 메모리 수퍼사이클, K-반도체의 성공사이클을 완성하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Micron Technology	19.78
2	Sandisk	17.64
3	Western Digital	14.11
4	Seagate	14.06
5	Silicon Motion	7.87
6	Lam Research	6.08
7	KLA	6.03
8	ASML	5.13
9	ASE Technology	4.74
10	Amkor	4.48

종목명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					
종목코드	0181B0					
상장일	2026.05.12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Solactive US AI Memory Semiconductor Top4+					
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수탁/사무	HSBC/한국펀드파트너스					
보수	운용	AP,LP	수탁	사무	총보수	
	0.30	0.01	0.02	0.02	0.45	

- 기준일 26.06.30,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시후 1년 이내 상품으로 기타비용 미기재. ETF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6.30

ETF명	투자포인트
<b>HANARO Fn K-반도체</b> 3M 수익률(세전) <b>+170.21%</b>	종목코드: 395270 규모: 5조 6,572억 상장일: 2021-0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시대 핵심 전략 인프라로 격상된 K-반도체의 위상, 한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ETF</li> <li>• HBM, DRAM, SSD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성장 및 밸류에이션 리레이팅</li> </ul>
<b>HANARO 200</b> 3M 수익률(세전) <b>+84.06%</b>	종목코드: 293180 규모: 6,357억 상장일: 2018.0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증시의 구조적 재평가, 한국 대표지수에 투자</li> <li>• 글로벌 공급망 핵심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산업생태계</li> </ul>
<b>HANARO Fn 5G산업</b> 3M 수익률(세전) <b>+76.27%</b>	종목코드: 367740 규모: 270억 상장일: 2020-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발전에 따라 고도화되는 네트워크 인프라. AI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라는 메가트렌드에 투자</li> <li>• 통신사와 IT 하드웨어의 균형잡힌 밸류체인 투자</li> </ul>
<b>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b> 3M 수익률(세전) <b>+75.66%</b>	종목코드: 0040S0 규모: 809억 상장일: 2025.0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의 진화 피지컬AI</li> <li>• 기술진화와 국가간 혁신경쟁을 통한 발전 가속화</li> <li>• 피지컬AI 토털 솔루션, 밸류체인 핵심종목 선별 투자</li> </ul>
<b>HANARO 코리아밸류업</b> 3M 수익률(세전) <b>+75.64%</b>	종목코드: 495750 규모: 953억 상장일: 2024-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그 중심에 밸류업 지수</li> <li>•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선진화된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li> </ul>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856호 (2026.07.01~2027.06.30)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 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추적오차 및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는 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본자료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